◈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편집국장 : 조선근

## 맥추감사주일

###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 1-5부예배시 성찬식 · 찬양예배시 할렐루야찬양대 감사 찬양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명령된 맥추를 기념하는 '맥추감사주일'이다. 맥추절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중 지키던 3대 절기 중 두번째 절기로서 칠칠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절기는 또한 거두어 단을 묶는 절기라는 의미에서 추수절로 불리기도 하며, 희랍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기념일이라는 의미에서 오순절(오십일째 되는 절기)이라 불리어졌다.

지리적인 환경과 현실적인 여건상 구약의 맥추절이 신약의 모든 교회에 적합한 절기는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것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소중한 축복의 선물이다. 이에 따라 교회는 맥추절을 주요한 교회력에 포함시켜 지켜오고 있는 것이다. 한 해의 반을 보내면서 기념하게 되는 '감사의 주일'이 있음으로 성도들은 지나온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은총을 돌아보고 감사의 생활을 회복할 수 있다.

오늘 맥추감사주일을 통해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감사를 통해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총을 입을 수 있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 오늘 오후 찬양예배는 할렐루야찬양대와 오케스트라에서 준비한 감사찬양예배로 드리게 된다. 찬양곡은 모차르트가 작곡한 것으로, 이 곡에는 시편 110-113편 및 누가복음1장의 마리아의 찬가 등이 포함된다. 곡 중 솔로는 박나연, 배행자, 이재욱, 강임구 집사 등이 맡는다. 성도들의 많은 격려와 참여를 기대한다. 한편, 오늘 1-5부예배시에는 99년도 4차 성찬식이 거행된다. 지난 한 주간동안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함으로 준비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성도들과 하나되는 은총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참여해야 하겠다.

## 지휘자와 반주자를 위한 제3회 전국찬양대지도자강습회

### 8월 11-14일, 충현교회에서

지휘자와 반주자를 위한 제3회 전국 찬양대지도자 강습회가 오는 8월 11일(수)부터 14일(토)까지 3박 4일에 걸쳐 우리 교회에서 개최된다. 찬양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본 행사는 작년 여름과 지난 겨울에 이어 세번째로 치러지는 것으로 여름에는 지휘자와 반주자를 대상으로, 겨울에는 찬양대원과 독창자들을 대상으로 특징있는 강습을 실시해 오고 있다. 자세한 내용 및 프로그램은 오른쪽 표와 같다.

참가자격: 보다 영적이며 훈련된 모습으로 찬양하기 원하는 전국 교회의 지휘자, 반주자
참가인원: 선착순 260명(지휘 160명, 오르간 반주 50명, 피아노 반주 50명)
참가신청: 소정의 참가신청서, 참가비(4만원: 3박4일간의 교육과 교재, 숙식 제공 포함)
참가접수: 7월 31일(토) 오후 5시까지
참고사항: 수료자에게는 소정의 수료증 수여
문의/신청: 충현교회 찬양위원회
(02-552-8200 교환 259, 260)

시간표

| 시간 | 8월 11일(수) | 8월 12일(목) | 8월 13일(금) | 8월 14일(토) |
|---|---|---|---|---|
| 06:30 | | 아침운동 | 아침운동 | 아침운동 |
| 07:00 | | 세면 | 세면 | 세면 |
| 07:30 | | 아침식사 | 아침식사 | 아침식사 |
| 08:30 | | 실기 개인레슨 I | 말씀특강 | 중창경연대회 |
| 09:30 | | | 실기 개인레슨 II | |
| 10:00 | | | | 티타임 |
| 10:20 | | | | 토의결과 보고 및 설문조사 |
| 10:30 | | 성가합창문헌 I 피아노 반주 문헌 오르간 반주 문헌 | | |
| 11:00 | | | 성가합창문헌 II | 폐회예배 및 수료식 |
| 12:00 | 접수 | 점심식사 | 점심식사 | 점심식사 |
| 13:00 | | 실기분반 I | 실기분반 III | 집으로! |
| 14:00 | 개강예배 | | | |
| 14:30 | | 휴식 및 간식 | 휴식 및 간식 | |
| 15:00 | 강습회 안내 | 실기분반 II | 실기분반 IV | |
| 16:00 | 특강1 : 발성론 | | | |
| 16:30 | 특강2 : 반주론 | 찬양론 | 조별토의 | |
| 18:00 | 저녁식사 | 저녁식사 | 저녁식사 | |
| 19:00 | 휴식시간 | 발성적 성가 지도법 및 비디오 찬양감상 | 금요찬양연습 | |
| 19:30 | 수요II예배 | | 금요찬양집회 | |
| 20:30 | 교회음악의 위기 | | | |
| 21:00 | | 1일 부흥회 | | |
| 21:30 | | | | |
| 22:00 | | | | |

## 선교정탐훈련 제1기생 모집

### 7월 7-10일 실시

### 6일(화)까지 선교위원회로 신청

선교위원회는 선교정탐훈련을 위한 특별반을 신설하고 제1기생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선교사 혹은 선교정탐 사역에 관심이 있는 성도 및 LMTC 과정을 수료했거나 99년도 말까지 수료가 가능한 성도, 그리고 기초적인 영어회화가 가능한 성도들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은 7월 6일(화)까지 선교위원회에서 접수하며, 훈련은 7월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 동안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선교위원회로 문의하면 되고, 프로그램은 오른쪽 표와 같다.

| 시간 | 7월 7일(수) | 7월 8일(목) | 7월 9일(금) | 7월10일(토) |
|---|---|---|---|---|
| 06:30-07:30 | | 경건의 시간 | 경건의 시간 | 경건의 시간 |
| 07:30-08:30 | | 아침식사 | 아침식사 | 아침식사 |
| 08:30-09:00 | | 찬양 | 찬양 | 찬양 |
| 09:00-10:30 | 개회예배 | 민속학적 연구III | 정보수집방법II | 세계관 분석 I |
| 10:30-11:00 | 휴식시간 | 휴식시간 | 휴식시간 | 휴식시간 |
| 11:00-12:30 | 미전도종족집단 | 민속학적 연구IV | 정보수집방법III | 세계관 분석 II |
| 12:30-14:00 | 점심식사 | 점심식사 | 점심식사 | 폐회예배 |
| 14:00-15:15 | 민속학적 연구 I | 정보수집방법 I | 정보수집방법IV | |
| 15:15-15:45 | 휴식시간 | 휴식시간 | 휴식시간 | |
| 15:45-17:00 | 민속학적 연구II | 현장실습 | 현장실습 | |
| 17:00-18:00 | 휴식시간 | 휴식시간 | 휴식시간 | |
| 18:00-19:00 | 저녁식사 | 저녁식사 | 저녁식사 | |
| 19:00-20:00 | 수요II예배 | 현장실습보고회 | 현장실습보고회 | |

## 교육세미나 은혜 중 마쳐

### 구체적인 교육대안들 제시

교육연구소와 제1-3교육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실시한 교육세미나가 지난 6월 28-29일 양일에 걸쳐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연인원 780여명의 교사들이 참석한 금번 세미나는 주제강의와 분과별 토의로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특히 교과과정, 교사, 교재, 조직, 재정, 행사 등 총 6개 분과로 나뉘어 토론하여 정리 발표된 내용들 중에는 교회교육의 질적 개선과 영적 성숙을 위해 꼭 필요한 실제적인 대안들이 다수 제출되었다.

교육연구소는 금번 세미나에서 제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교육백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땀흘려 수고하는 교사들의 구체적인 필요와 건의들이 교육정책에 반영되어 '천국일꾼을 키우는 일'이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 충현전도훈련원 제2기 수료

### 지난 6월 30일에 30명

지난 5월 12일부터 시작된 충현전도훈련원 제2기 과정이 지난 6월 30일(수) 수료식을 통해 일단락되었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 진행된 5주간의 강의와 기도회, 그리고 3주간의 전도실습을 통해 훈련생들은 전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몸소 실천하는 기쁨을 맛보았다. 이들이 그동안 구체적으로 복음을 제시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낸 영혼들은 93명에 달하며 이 중 3명은 외국인 근로자여서 외국인선교부로 안내하기도 하였다. 이제 수료생 전원은 충현전도대원으로서 지속적인 전도운동에 앞장서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 여름수련회

### 이번주엔 대학부 · 장년2, 3부 · 호산나찬양대

여름수련회가 계속되고 있다. 7월 5-8일에는 대학부(강사 : 김동하 목사, 주제 :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7월 8일에는 호산나찬양대(강사 : 조문찬 목사, 이승순 집사, 주제 :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 그리고 7월 8-9일에는 장년3부(강사 : 정현민 목사, 이종석 장로, 주제 : 묵은 땅을 기경하는 성도)가 각각 충현기도원에서 수련회를 갖는다. 그리고 장년2부(강사 : 윤영탁 목사, 정갑신 목사, 주제 : 더욱 더 이루어야 할 구원)는 7월 5-6일 합동신학대학원 대학 교정에서 수련회를 실시한다.

**1. 고등부에서는 농어촌전도사역에 침술과 미용 봉사로 함께 참여하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대상: 침술사 2명, 미용사 2명
자격: 충현교회 교인으로서 해당 자격증이 있는 분
사역기간: 7월 28-29일
사역지: 경남 거제군 둔덕면
** 동역하실 성도께서는 7월 11일까지 고등부 교사인 김동욱 집사(☎ 834-1601, 738-5141)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남녀전도부 월례회 연기 – 7월 11일로**

남녀전도부 월례회가 농어촌 전도대교육으로 인해 7월 4일에서 7월 11일로 한주일 연기된다. 한편, 오늘 오후 3시 30분 베다니홀에서는 '99 농어촌전도대 교육이 실시된다.

강 해

김 창 인 목사

#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 되라
## (이사야 44:6-8)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

### 1. 증거해야 할 구속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6절)

왕의 권한은 대단하여 오늘날의 대통령보다 훨씬 권한이 강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삼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상의 삼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은 법을 세우고 그 법을 집행하고 또한 그 법대로 상과 벌을 주는 최고의 집권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왕에게는 네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 백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둘째로 자기 백성을 어두운 데서 방황하지 않도록 의로운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자기 백성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굶거나 집이 없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로 자기 백성 중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자가 없도록 공평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말하는 왕의 자격을 갖춘 자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상의 자격을 갖춘 왕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권세 능력이 무한하시고 재산과 사랑이 무한하시고 지혜로 통치하시어 공의로 상선벌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악마가 손을 대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어두움에서 방황하던 자기 백성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쓸 것과 영에 필요한 것도 주시고 또한 세상을 떠나서 하늘 나라에 가서 살 것까지 다 준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속이거나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오른손이 하는 선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여도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심판하십니다.

어진 왕 밑에 있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좋은 목자 밑에 있는 양이나 훌륭한 부모님 밑에 자라나는 자식은 복이 있고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이 한 마디에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그의 백성이 되자고 전도해야 합니다.

(2)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십니다

"…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6절)

구속자란 죽을 자를 건져 내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앞길을 열어서 복된 길을 걷게 하는 자란 뜻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자신을 구해 줄 자가 필요하듯이 인간에게는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마태복음 11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갈대와 같아서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마 11:7) 타락한 인간은 바람에 불리는 갈대와 같아서 뚜렷한 목적이나 주장 없이 형편에 따라 사는 한심한 존재입니다.

둘째로 인간은 극단의 개인주의이므로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마 11:17) 나보다 나은 분에게서는 존경하면서 배우면 복을 받겠는데 그러지 않고 입으로는 공경하는 척하면서 마음으로는 미워하고 말과 행동으로는 헐뜯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은 사랑으로 붙들어 주고 키워 주어야 하겠는데 그러지 않고 업신여기면서 조금 있는 것을 빼앗아 먹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극단의 개인주의입니다.

셋째로 인간은 배은망덕하기 때문에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마 11:20) 인간은 의를 행하면 복을 받을 줄 알고도 실천하지 않고 버려야 할 죄악은 열심히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넷째로 인간은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인간은 근심과 무서운 질병과 짐을 졌고, 또한 죄악과 전쟁의 죽음의 짐들을 짊어지고 비탈길을 돌아가야 하고 가시밭길을 헤매어야 하고 캄캄한 밤중에 사막을 건너 가야 하는데 이리와 독사가 우글거립니다. 이런 험한 세상에서 인생이 올바로 살려면 자신의 힘으로는 안되는 것을 알고 "도와 주세요"라고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붙들려고 하듯이 어려움을 당한 인생은 돌이나 나무를 보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석신이여, 목신이여"라고 부르면서 살려 달라고 빕니다.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이나 붙들어 봅니다. 저 놈을 붙들면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간신히 가서 붙들어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물거품에 불과하여 허우적거리며 물을 먹게 되듯이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시간에 영혼은 더욱 깊은 죄악에 빠져 들어 갑니다. 마귀는 간악하여 죄악 세상에 지푸라기를 띄워 놓고 그것이 구원자라고 거짓 선전을 합니다. 물거품을 일구어 놓고 '너희가 이것을 붙들면 산다' 면서 꾀입니다. 물에 빠져 죽게 된 인생을 속여 골탕을 먹이고 또한 숨구멍을 누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구속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 2. 우리가 증거할 구속자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까

(1) 구속자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땅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속자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2) 구속자는 인간의 사정을 완전히 알아서 이해하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두워져서 자기의 사정도 다 모르는데 남의 사정을 어떻게 알 것이며 육신의 사정도 다 모르는데 영혼의 사정까지 알아줄 자는 더욱 없습니다. 마음과 몸의 사정과 사상과 영혼의 사정을 알아줄 분은 이 땅에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3) 사랑이 무한하여 필요한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야 합니다

구속자는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있는 것을 전부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이웃 사랑을 외쳐도 제일 사랑하는 것이 자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모두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4) 권세와 능력이 있으며, 영생하시는 분이라야 합니다

원수를 물리치고 질병을 고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땅에는 악마를 쳐부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악마를 정복하시고 상처받은 인간을 치료하시고 죽었던 인간을 부활시킬 구주이십니다. 또한 권세와 능력과 생명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5) 장래에 될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발표하고 성취하는 분이라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장래를 계획도 하고 그것을 실천도 해 보지만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발표하시고 실천하실 때에 그것을 반대할 자가 없습니다. 그 계획하신 것을 영원히 변치 않고 진행하십니다.

본문에 구속자 하나님을 '반석' 이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8절)

반석은 더위를 피하는 그늘과 원수를 피하는 도피처가 되고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망대도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피난처를 얻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굳건한 반석 위에 우뚝 서 있으므로 넘어뜨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요 승리자시요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려면 그가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 3. 구속자 하나님을 증거하려면 겁내지 않아야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8절)

구속자 하나님을 증거하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연도 무서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악마도 무서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의 품 안에 안긴 자에게는 두려움이 도망가고 평안합니다. 또한 일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분을 맡기면 '전 못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을 겁내지 않아야 합니다. 죽는 것이 겁나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생하게 되므로 땅 위의 하루가 짧으면 오는 세상의 하루가 긴 것뿐이고 주소가 바뀌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겁내지 않는 자는 매사에 전진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앉아 있지 못하고 전진합니다.

### 4.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 알았으니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증거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증거만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품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하여 성경을 배우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없이 일어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 일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설교

김 성 관 목사

# 축복받은 기브온 족속

## (여호수아 10:8-11)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

### 기브온의 계략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모든 도시들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기브온 족속의 성읍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도 공격하여 멸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의 모든 거민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듣고나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피할 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그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사절단은 해어진 전대와 해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원방에서 온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루신 승리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이 최근에 이룬 승리 등에 대하여 장황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언약을 맺었습니다.

### 밝혀진 계략

그러나 화친의 언약이 체결된 지 삼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이 원방의 외국인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에 있는 족속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언약을 체결했던 지도자들에 대하여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화친의 언약이 비록 속임수에 의한 것이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된 것이었으므로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기브온은 맺은 언약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일을 하는 자로 살아가야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생명을 보전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자유를 얻고자 계략을 쓴 결과 실제로는 종이 되었지만, 그들이 섬기는 일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소용되는 장막에서의 섬김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들이 축복받은 족속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아모리 연합군의 공격

그런데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기브온과 이웃하고 있던 아모리의 다섯왕은 연합군을 모아 기브온을 공격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기브온 족속은 곧 여호수아에게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길갈에 진을 치고 있던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행하여 기브온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여러분을 속인 이웃이 여러분에게 과중한 도움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부탁을 받고나서 해결하기 위해 달려들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대개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지금은 좀 피곤한데", "너무 바빠서 곤란해", "내가 처리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런 문젠데, 다음 기회에 봅시다".

### 여호수아의 신속한 반응

하지만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군사와 용사들은 기브온을 위한 전쟁에 달려나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 전쟁터로 달려나간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라' 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이끌고 밤새도록 높은 산을 기어오르고 쉬지도 못한 채 온종일 적군과 싸우는 동안 불평하는 소리들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순종하는 수고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 수고의 땀이 흘려져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성을 돌고 소리치는 것으로 정복한 여리고와 고작 2천명의 거민밖에 없었던 아이성, 그리고 스스로 찾아와 항복한 큰 족속 기브온 등을 경험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별다른 수고 없이도 얻어질 수 있다는 환상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쉽고 또 수월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단계가 다 손쉬운 것으로 여겨져서 안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임하지만, 필요 이상의 도움은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이곳 저곳을 향해 진군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남부 가나안의 족속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자신의 전능하신 힘에 연합하여 행하는 이스라엘의 수고의 땀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안에 있는 많은 복된 요소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열망하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싸움이 없다면 우리들은 그것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은 실로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열망하는 자만이 그것에 도달할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야말로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싸우는 삶이 날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손쉬운 구원, 값싼 은혜를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결코 안온하고 쉬운 여행, 목적지까지의 안일하고도 쉬운 도착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실로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열망하는 자만이 그것에 도달할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야말로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싸우는 삶이 날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손쉬운 구원, 값싼 은혜를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결코 안온하고 쉬운 여행, 목적지까지의 안일하고도 쉬운 도착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 약속을 지키기 위한 헌신

가나안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 권능이 반드시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나안땅이 우리들 안에서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헌신과 수고의 땀이 흘려져야 합니다. 기브온을 둘러싸고 있는 아모리의 다섯 왕은 유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을 지형학적으로 잘 알았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길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시 2:1-2). 이 위대한 시편은 오늘 본문의 정황을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과 약속했습니다. 반면 아모리의 다섯 왕은 이 약속을 파기시키고자 모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일어난 것은 바로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기브온을 구해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기브온의 요청 앞에 결코 지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 확신과 약속

여호수아가 진을 치고 있던 길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이스라엘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는 뜻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부터 받은 수치와 조롱이 이제 다 지나간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실망은 사라졌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모리 다섯 왕의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해 바로 이 곳을 출발하여 기브온 진영까지 단숨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에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수 1:5)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위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가 여호수아의 손에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저할 이유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소유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수 1:3). 이에 따라 여호수아는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적진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9절).

### 전사이신 하나님

여호수아가 적진에 도착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군을 여호수아 앞에서 패하게 하셨고, 손수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습니다(10-11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고와 우박을 동반하는 폭풍을 사용하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그 힘 앞에서 세속의 막강한 권세가 부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랑과 그의 비길데 없는 권세를 드러냅니다. 그 누가, 그 어떤 권세와 지식과 경험이 우리 하나님 앞에 능히 서겠습니까.

세계 선교

# 홀트아동복지회 초청 입양인 우리 교회 방문

## 따스한 사랑으로 환영해야 7월 3-4일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서 외국으로 입양된 우리 아들딸들이 이들을 입양한 가족들과 함께 7월 3일부터 오늘까지 충현교회를 방문한다. 입양인들과 그 가족들 모두 26가정에 61명이다.

이들은 7월 3일 오후 4시에 교회에 도착해서 여장을 풀고 도착 환영예배에 참석한 후에 민박가정으로 흩어졌다가 주일 오전 9시 영어예배와 오전 11시 3부예배에 참석하게 된다. 예배 후에는 메추라기홀에서 점심식사를 하게되고, 교회로부터의 환영인사를 받게 된다.

이번 초청은 선교위원회와 영어예배부가 주축이 되어 교구위원회의 협조로 이루어졌다. 많은 성도들이 적극 자원해서 민박을 신청하고 입양인들을 환영하는 마음들이, 준비하는 마음을 흐뭇하게 해서 더욱 은혜로웠다. 이들 입양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매년 우리가 베푸는 사랑이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모든 환영인사와 예배 후에는 본당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게 된다. 매년 같이 찍는 기념사진이, 교회나 어느 특정한 기관의 앨범에만 묻혀 버리지 않고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도 묻히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에게 적으나마 베푼 사랑이 우리 각자의 일상 생활에서도 기념사진처럼 또렷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우리가 초청하는 것이 매년의 연례적 초청을 받고 오는 이들에게는 결코 일회용의 추억으로만 남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병수 전도사)

### 러시아어 통역 교사 모집

국내외국인근로자선교부에서는 러시아어 통역이 가능한 교사를 모집합니다.

주일예배와 성경공부시 하나님 말씀을 현지 근로자들이 잘 이해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하실 의향이 있는 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 선교위원회
(선교관 4층, 교환 356-358)

민족 복음화

총동원전도 돌아보기

# 영혼을 건지는 열심을 끝없이 부으소서!

이제, 각 교회학교에서 실시해온 전반기 총동원전도, 초청전도집회, 잃은양 찾기 등의 행사가 다 끝났다. 올해도 이 행사를 위한 교사들의 애타는 마음과 기도, 수고의 땀은 계속되었다. 많은 인적 물적 자원, 그리고 시간과 정성이 부어지는 이 행사는 나름대로 큰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는 것 같다. 무언가 좋은 변화의 조짐도 보이게 된다.

반면, 매년 실시되는 이 행사는 세월을 거듭하면서 연례적인 일회성 행사로 고착되는 경향이 매우 강해지고 있다.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전도되기도 하고 또한 잃었던 양들이 대거 몰려들기도 하지만, 전도된 친구들은 한 주 두 주 시간이 지나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잃었던 양을 또다시 잃어버리는 현상도 속속 생긴다. '원상회복'은 시간문제다. 이러한 와중에서 총동원전도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무너지고 전도열기마저 식을까 염려된다. 이에, 총동원전도행사의 빛과 그림자를 조망해 보면서 성실한 준비와 대책을 기대해 본다.

## 연중 계속되는 태신자품기운동으로 영혼 구원의 열정 이어져야

김 재 철
(목사, 전도위원회, 10교구 지도)

우선 총동원 전도에 장점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총동원전도는 전도에 대하여 잠자고 있던 성도들을 깨워 전도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각 부서와 교회의 영적인 역량을 집중시켜 하나되게 만드는 힘을 부여해 줍니다. 따라서 초청전도집회나 총동원전도행사를 잘 치르고 나면 각 부서의 학생들과 성도들의 신앙이 한결 자라나고 더욱 헌신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총동원전도가 연례적으로 치러지면서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순전한 믿음으로 뒷받침되지 못할 때, 이는 하나의 행사로 그치는 경향으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특히 행사의 남발과 물량공세, 선물공세 등에 지나치게 치중하게 되면서 전도의 핵심과 복음의 진정성이 흐려지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부터 전도위원회에서는 일회성 전도행사를 지양하고, 일년 내내 영혼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태신자를 정하여 기도와 교제를 통해 전도하는 '태신자 품기운동'을 계획하고 이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계속되는 이 운동이 지난 5월에 실시한 교회주변 집중전도(이 날 하루동안에 450여명의 전도대상자가 확보되어 현재 교구별로 전도 심방하는 중)와 10월 말에 실시할 태신자 1천명 초청잔치로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총동원전도 무용론을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영혼 구원의 열정을 품고 연중 지속적으로 전도하는 일과 총동원전도가 자연스럽게 연관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된 자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들을 또다시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더욱 세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99 홈컴잉데이 — 그 이후

이 승 학
(목사, 청년1부 지도)

청년1부는 1999년 5월 30일(주일) 11시부터 14시 40분까지 홈컴잉데이(잃은양 찾기)를 가졌다. 이 행사를 위해 교사회와 면려회 임원들은 약 두달 전부터 준비하였고 곧 이어 화·금 작전(화요 새벽기도회와 금요집회 참석)에 들어갔다. 목표는 500명이었다. 사실 청년1부 역사상 500명이 한 자리에 모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때문에 500명이란 숫자는 청년1부 가운데 심리적 한계선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500명을 목표로 잡았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바로 전날 알뜰 행사로 상당수의 회원들이 몹시 지쳐 충분한 연락을 못했을텐데도 당일 수많은 청년들이 교육관 507호로 속속 모여들었던 것이다. 최종집계는 537명. 청년1부를 오랫동안 섬기던 교사 몇 분은 과거에 출석했다가 안보이던 얼굴들이 이번 행사에 많이 보였다고 귀띔해 주었다. 한 마디로 대성공이었다. 그 날 저녁 사역자 기도회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일종의 성취감으로 상기되었던 표정도 잠시, 정작 열매가 이어져야 할 다음 주 집회 참석수는 350명선으로 떨어졌다. 평가회로 모인 자리에서는 이번 행사의 무익성은 물론 해악성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대안 없는 일회성 행사는 좌절감과 허탈감만 안겨 준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행사의 취지 자체가 이벤트(event) 성향이 강한 초청 집회였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너무 자책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 이번 행사의 목적은 '젊은이들의 안식처로서의 청년부를 알리고 영혼을 구원하며 나아가 하기 사역에의 동참을 유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에 있었다.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정리해 본다.

1) 초청 전도 집회는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해야 한다. 시험이 있기에 공부하듯이 행사가 있기에 전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2) 1년에 두 번 한다면 한 번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목표 수치를 정하고 모두가 뛰는 초청 전도에 초점을 두고, 다른 한 번은 새로 나온 회원들이 모임에 꾸준히 참석할 수 있도록 우정 전도에 초점을 두어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한다.

3) 사후 대안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 청년부에서는 조장들이, 그 밖의 부서에서는 교사들이 영적으로나 수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많은 고기가 있어도 그 고기를 담을 용기와 물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4) 기도로 준비하라는 것이다. 설령 준비 부족으로 목표가 미달하더라도 기도는 남는다. 그러나 기도로 준비한 행사가 목표까지 채워졌을 때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강하게 느낄 때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5) 철저한 기획을 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와 기획을 상반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결코 아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행사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최선의 기획을 통해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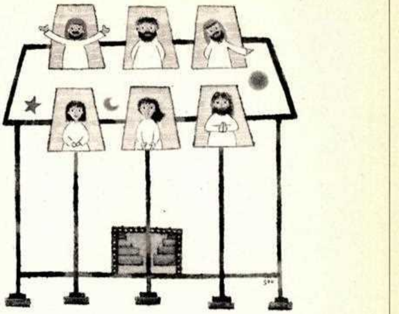
'99 홈컴잉데이를 치르고 씁쓸함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배웠고 기도를 배웠고 가능성을 확인했다. 얼마나 큰 선물인가. 근대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의 말이 생각난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 모범사례
### 매주 계속되는 학교전도와 총동원전도가 잘 조화되고 있습니다

유년부는 아무리 궂은 날씨에도 단 한주도 빠짐없이 매주 토요일 학교(학동초등학교, 논현초등학교)앞 전도를 나갑니다. 그리고 일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총동원전도를 실시합니다. 이 두 가지는 참으로 잘 조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만해도 학교앞전도와 총동원전도를 통해서 전도된 어린 영혼들이 300명이나 되고, 이 중 150명이 등록하여 아직까지 출석하고 있습니다(이중 70명이 총동원전도를 통해서 새로 나온 어린이). 새신자 어린이가 들어오면 5주에 걸쳐서 '예수님 영접'을 비롯하여 기본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각 반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 년

# 4, 5, 6학년의 저력



장년1, 2, 3부에 해당하는 40대, 50대, 60대의 성도들. 오랜 세월 충성의 언덕을 오르내리느라 이들 안에는 영적인 근육이 든든하다. 70세 이상의 성도들이 쌓아온 순종의 땀을 이어받아 여전한 신앙으로 교회의 모퉁이돌로서의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해왔다. 사실, 젊은이들이 마음껏 신앙의 장을 펼치고 응석을 부릴 수 있는 것도 이들의 든든한 후원덕분이다. 충현 젊은이들의 신앙이 유난히 순수하다는 평도 다 이들이 일구어놓은 신앙의 물을 먹고 마신 덕분이다. 이들은 오늘도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맡겨진 몫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다. 가정에서는 가장과 어머니로서, 교회에서는 선생과 헌신된 일꾼으로서,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직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선교사로서 이들은 이 땅에서는 대가를 바랄 수 없는 섬김에 자신을 쏟아붓고 있다. 이들을 향한 젊은이들의 사랑과, 젊은이들을 향한 이들의 짝사랑(?)을 들어본다.

## 내가 바라보는 교회의 장년

송 은 석(청년1부)

청년들이 장년층을 바라보는 시각은 가지가지이다. 청년들은 일반적으로 장년 선배들에 대하여 청년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과 현재에서 더 이상의 변화를 감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과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시지 않는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다른 부분에서 장년층에 접근하기 원한다. 결코 청년들과 먼 거리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고, 그분들은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지 결코 멀리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충현교회 장년은 다음과 같은 모습이 있기에 충분히 존경받을 대상이 된다.

첫째, 결단의 신앙이다. 다른 곳에서는 타협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지만 충현의 장년층은 지독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은 거부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계시지 않음을 삶의 시간을 통해서 실제적인 체험들이 있으신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은 끊어버리는 결단의 신앙을 가지고 계시다. 신앙은 결단이다. 세상과는 단절되고 분리되더라도 오직 하나님은 놓지 않겠다는 결단이 신앙이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장년들이다.

둘째, 사랑의 섬김이 있는 신앙이다. 교회 안에서 섬김의 자리의 대부분은 장년층의 성도들이 섬기고 있다. 누구든지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뒤를 좇는다는 말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섬김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불가능하다. 교회에 대한 애착과 염려를 가지고 있으며 몸으로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는 신앙이 장년들의 신앙인 것이다.

셋째, 청년들에 대한 사랑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흔히 청년들은 장년층들이 청년들을 이해하지 않는다는 불평과 불만이 있다. 하지만 우리 주변들을 차분하게 돌아보면 결코 그러한 말은 나올 수가 없다.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성장하기까지는 그분들의 기도의 양육이 없었다면 우리의 성장은 불가능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교회 예산의 많은 부분들이 청년들에게 투자되어지고, 청년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에 한 가지로 동참하고 계신 손길들이 역사 장년들이다.

이상과 같은 모습을 보면 장년층은 우리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충현교회를 사랑하셔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셨다. 이분들이 계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는 충현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 나의 짝사랑, 젊은친구들

한 숙 정(집사, 새가족부 교사, 15교구)

장년의 사도 바울은 청년 디모데를 키우고 또 충성스런 자들을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열정을 쏟아부으며 세대차이를 떠나 동역자로, 경주자로 아름다운 사역의 조화를 이루며 달려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청년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따르며 존경하였고 바울은 그를 아들이라 부르며 사랑으로 권면하고 가르쳤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자.

장년과 젊은이와의 크고 두터운 세대차이는 삶의 질이나 목적, 문화와 사회의 구조, 생활관습과 언어, 특히 신앙적으로도 확연히 구분된다. 장년층에서 보면 '다가가기 힘든 젊은이'이고, 젊은이층에서 보면 장년들은 권위적이요 무조건적이요 주입식이요 형식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부모세대에 대해 아랫사람으로서 순종의 태도를 보일 뿐 속마음을 터놓기를 꺼린다. 완고한 장년에 대해 지고 넘어가는 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장년으로서는 '다가가기 힘든 젊은이' 세대와 함께 동역해야 하는 사역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감당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 먼저, 젊은이들의 눈에 비친 장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자. 장년들이여! 연륜의 쌓임만으로 젊은이들에게 권위적이 되지 말자. 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을 강요하지 말자.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살고 스스로 밀알이 되어 썩자. 젊은 그들이 보고 스스로 존경의 뜻을 표할 수 있도록 하자. 저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가꾸어 주고 믿음의 좋은 토양을 만드는 것이 오늘날 장년들의 책임이요 의무이다. 자신들은 스스로 타협하며 살면서 저들을 향해 순수하라, 섞이지 말라 하면 그들이 듣겠는가? 육신을 따라 먹을 나이의 장년이 아닌 성령으로 거듭난 장성한 장년이 되기를 기도하며 힘쓰자. 생명은 이어받고 이어주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그 육체가 젊거나 늙거나 노쇠현상을 겪지말아야 한다. 영적인 자녀들이 계속 탄생되고 있는가 없는가로 젊음과 늙음이 구분된다. 사도 바울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는 고백으로 그리스도인의 생산능력은 육체와 같지 아니함을 알려 주고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자녀가 없다면 그것이 문제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원천인 그분이 장년과 '다가가기 힘든 젊은이'를 연결시켜 주는 유일한 해답이다. 이제 답을 알았으니 주 예수를 아는 일과 그분의 증인으로 전도와 양육과 파송을 위한 밀알이 되자.

다가가기 힘든 젊은이들이여! 그대들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장년들과 기꺼이 복음의 군사로 함께 가지 않겠는가.

# 남자 살리기

조 칠 수(목사, 신혼가정부, 13교구 지도)

어느 교회에서 남자 살리기 운동을 하자고 하니 남자들이 "우리가 언제는 죽었냐? 살리게 …"라고 했다는 말이 기억납니다. 사실 현대 남자들은 죽어 있어야 할 혈기와 죄악된 것 등은 살아 있습니다. 반면에 살아 있어야 할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영혼이 죽었습니다. 가장으로서 권위와 역할과 책임감이 죽었습니다. 현대 남성의 권위와 위상은 끝없이 허물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남존여비란 단어마저도 남자란 존재는 여자에 의해 비참해진다는 조어로 재해석되고, 여필종부도 여자는 필히 남자를 종으로 부려야 한다고 그 의미가 곡해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정에서 추락한 가장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웃지 못할 웃기는 이야기로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아침에 아이들을 깨울 때 "야! 해가 중천에 떴는데 빨리 일어나!" 했었는데, 요즈음은 아버지가 아이들을 깨울 때 "야, 일어나라. 너의 엄마가 일어나라고 한다" 하면서 깨운다고 합니다.

현대 가정은 남자는 있으나 가장은 없다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현대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가 사라짐으로 그 누구의 권위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사기에 "왕이 없으매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의 옳은 대로 하더라"는 표현처럼, 현대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세운 가장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식구들을 모두가 자신의 생각대로 마구 해 버리므로 혼란 그 자체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대 가정에서 갈수록 소외되고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아버지의 지위를 높이고, 가장의 권위를 세우는 방안을 곳곳에서 시행하고 있음을 볼 때 희망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제도나 구호로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남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만 벌어다 주는 역할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바르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가장의 권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적 자유와 죄악을 탐닉하는 세상 속에서 거룩과 순결의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며 가장이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은 가정의 머리인 가장이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면서 가장의 권위를 세우고 인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엡 5:22-23)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며 남편에게 복종하며 세워 주어야 합니다.

이제 남자들은 가정에서 영적, 인격적, 교육적, 물질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이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필요를 이 시대는 절실히 느낍니다.

##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교회교육 시리즈 2

# 사람이 문제다

1. 문제제기
2. 사람이 문제다
3. 교회교육과 시공간 문제
4. 자녀교육은 곧 신앙교육
5.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20세기의 아이들을 19세기의 교사가 18세기의 교실에서 수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시대는 자꾸 변화하고 아이들은 민감하게 발맞추어 나간다. 첨단 컴퓨터와 초단위로 변하는 현란한 비디오와 게임기에 익숙해진 아이들을 장의자에 일렬로 앉혀 놓고 일방적인 주입식 성경공부로는 당해낼 도리가 없다. 그러나 최신형 컴퓨터를 고철로 만들어 버리고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방법이 있다. 바로 헌신된 그리스도의 교사들이다.

학교 선생님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신의 능력과 성품과 인격으로 지식을 전달한다. 그러나 교회학교 교사는 다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영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다. 교사의 인품과 지적인 능력만으로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교사가 되기 위해 훈련받는 외적인 자격 요건만으로는 부족하다. 주일에 주어지는 짧은 성경공부 시간을 성공적으로 끝내는 것만으로 아이들에 대한 교사의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다.

먼저 하나님을 만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거룩함을 위해 몸부림치는 신앙인이어야 한다. "하나님, 제가 가르치는 이 아이들이 나와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식의 도덕교육을 해서는 안된다. 날마다 십자가의 감격과 구원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랑과 부지런함이 있어야 한다. 어느 고등부 교사 중에 이런 분이 계셨다. 공부하느라 시간에 늘 쫓기는 아이들을 상담하기 위하여 야간 자율 학습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밤 11시라도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기도해 주고 돌아가곤 하셨다. 늘 가지고 다니는 수첩에는 빼곡하게 아이들의 기도제목과 상황을 적어 놓고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을 일일이 찾아 다니셨다. 매일 한두 명을 만날 스케줄이 있었다.

매년 교회학교 교사들 중의 많은 수가 학생들의 가정방문 보고서를 힘겨워한다. 그래서 대부분 전화 상담으로 끝내려고 한다. 학부모들도 굳이 집까지 찾아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 그러나 교사는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졌기에 그 아이들의 형편을 알아야 한다. 수고없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 될 수밖에 없으며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아이들이 성경말씀을 재미 없어 하고 지루해 하는 것은 말씀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아이들이 어려운 성경보다는 컴퓨터 오락과 만화책을 더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이들에게는 영적인 갈급함과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오해를 하지 말라. 아이들의 영혼이 소리치고 있다. 컴퓨터 오락을 해도 메꿀 수 없고 학교공부로도 채울 수 없고 친구들과의 놀이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아이들을 외롭게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의 영적인 기갈을 채워달라는 그들의 외침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성경공부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훌륭한 선생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아이들을 가슴으로 안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주며 눈물과 꿇은 무릎을 가진 교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교회학교는 거듭난 교사로 인해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편집실)

# 맥추감사절

이 종 대(목사, 소망부, 6교구 지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매년 3대 절기를 지키게 하셨다.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다. 모두가 수확, 즉 추수와 관계가 있다. 유월절에는 보리 추수, 맥추절에는 밀 추수, 초막절에는 과일, 특히 포도와 그외의 모든 것을 수확한다. 유월절은 하루를 지키고 어린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린다. 흠없는 어린양의 숫컷을 드렸다. 이어서 7일간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었다.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다. 누룩없는 떡은 죄없는 예수님의 몸을 예표하고 쓴 나물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한다. 유월절이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고 안식 후 첫날, 즉 지금의 주일(1월 16일)에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린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이날로부터 7안식일을 계수하여 안식 후 첫날이 바로 맥추절이다. 그래서 맥추절을 칠칠절, 오순절(7×7+1=50)이라고도 한다. 이 7주일 동안에 보리추수가 끝나고 밀추수도 맥추절 전날까지 끝내고 맥추절을 지켰다. 밀 추수를 미리 하더라도 맥추절 제사를 드리기까지는 햇밀을 먹지 않았다. 맥추절에는 햇밀로 누룩을 넣어 구운 떡 두 덩이를 먼저 요제로 하나님께 드린다. 누룩 넣은 떡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성도의 몸을 예표한다. 두 덩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표하며 둘이 하나되어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교회를 예표한다. 첫 밀 이삭의 떡과 함께 어린양을 하나님께 드렸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예표한다. 누룩 넣은 떡이기에 제단 위에는 놓지 않았다.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다.

맥추절은 공동의 식사로써 종료된다. 이 식사에는 가난한 자, 나그네, 레위인들이 오게 되었다. 이것은 성도들이 빈부나 기타 어떤 이유로도 파벌을 갖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여 하나가 되어 화평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맥추절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23장 9-22절에 나온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는 이 날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날로 기념하고 지키게 되었다. 유월절 후 석달째 되는 초하룻날에 시내산에서 율법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맥추절, 즉 오순절에 성령강림이 일어나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취되었다. 즉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맥추절에는 성경 말씀 즉, 구속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맥추절이 오순절이고 바로 성령강림절이다. 원래는 올해 5월 23일 주일이 성령강림절, 즉 오순절이나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리추수기에 맞추어 맥추절을 7월 초로 한 것이 그대로 이어져왔다. 그러니까 날짜로 계산하면 성령강림절이 맥추절, 즉 오순절이다. 그러나 골로새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절기를 정확히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므로 7월 첫주에 맥추감사절로 지내는 것을 힐난할 이유는 없다. 맥추절을 지킨다기보다는 성령을 보내 주사 하나되어 교회가 생기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의 표현으로 헌금도 드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맥추감사절이 되어야겠다.

제7회 군전도회 수련회를 마치고

# 군 복음화 현장에 열린 은혜 잔치

박 철 구(안수집사, 12교구)

군전도회에서는 6월 14일부터 2일간 강원도 고성군 동해교회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120여명의 회원들이 전형준 목사님과 조용표 군목님(국방부)을 강사로 수련회를 가졌다. 14일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6시 30분경 3대의 버스에 나누어 타고 짙은 초록색 비단으로 곱게 단장한 금수강산을 감상하면서 북으로 달렸다.

강사 목사인 조용표 군목님이 먼저 동해교회에 도착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반갑게 맞이하여 주셨다. 첫번째 특강은 박인건 장로님의 사회로 찬송가 344장을 부른 후 표어제창을 하고 권사님 중창단의 은혜로운 특송이 있은 후 '입을 넓게 열어라' (시 81:10~11)는 제목으로 조용표 목사님께서 진행하셨다. 조 목사님은 독특한 사투리를 구사하면서 "큰 꿈을 가지고 크고 넓게 구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을 군목현장의 체험담을 중심으로 간증하셨다. 육군은 올해 22만명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전군 신자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도 덧붙였다. 예배시 드려진 특별헌금은 동해교회 김창수 목사님의 백혈병 치료를 위해 전달되었다.

두번째 특강 시간은 전형준 목사님의 '21세기 지도자의 역할' 이었다. 군목시절 지휘관들이 복음으로 변화된 과정들을 소개하면서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 주었다. 동해를 바라보면서 교회 앞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숙소로 출발하였다. 긴긴 여름 해는 오후 5시가 지났건만 뜨거운 햇볕은 여전했다. 한편은 시원스레 출렁이는 동해바다, 한편은 초록 이불을 뒤집어쓴 백두대간 설악산의 장엄한 모습에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를 감탄하면서 숙소에 도착하였다.

15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회를 가졌다. '자기를 지킨 요셉' (창 39:1-10)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항상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기 자신을 지킬 것을 다짐하고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개인의 기도제목과 특별히 60만 국군을 위하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를 하였다. 상쾌한 설악의 아침 공기를 마시며 산책도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명상의 시간도 가져보고 웅장한 설악과 망망한 동해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낙산에 도착하여 관광도 하였다. 맑은 물과 울창한 산림, 우뚝솟은 기암절벽, 지저귀는 새소리, 물보라 치며 쏟아지는 폭포,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도 할 말한 별천지다. 자연 속에 도취되어 얼굴마다 상기된 성도들의 얼굴이 천사와도 같다. 먼 길을 오고가면서 성도들의 자기 소개와 신앙간증, 찬송과 복음송을 합창하면서 뜻깊은 수련회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다.

## 지체들소식 / 물매돌

**지체들 소식**

### 영아부
### 하나하나 준비되어 가는 여름성경학교

지난주일 6월말 월례회로 영아부 한달을 마감했다. 각 부처별로 보고를 듣고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점검하며 돌아오는 7월을 준비했다. 7월에는 여름성경학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순서 맡은 것 하나하나를 다시 보고 워북을 최종 점검하고 마지막 인쇄단계만 남았다. 해마다 만나는 성경학교인데 이번은 더 마음이 설렌다. 어느해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해서인지 교사들의 기도가 쉬지 않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이번 성경학교는 많은 아기들과 엄마들이 참석하길 원하며 성령충만 은혜충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꼭 알고 배워 우리 마음속에 꼭 심어지길 원한다. (송혜경 통신원)

### 유아부
### 교사연구수업

6월 27일 교사연구수업을 했습니다. '잃은 양을 찾았어요' 라는 제목으로 이현숙 선생님이 준비하셨어요.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하시고 애쓴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 멋진 시청각 교재를 준비하셔서 어린이들도 너무 잘 집중해서 들었고 평소에도 선생님이 아이들을 잘 지도했구나 생각했습니다. 또 우리들 선생님들이 교재준비에 더욱 신경써야겠구나 생각했어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 예수님처럼 항상 우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 애쓰는 것을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려 노력해야겠고 또 아이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겠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임미순 통신원)

### 유치부
### 순종하는 이삭의 믿음 배워

"…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해.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의 일군이 되길 소망하는 어린이들의 찬양소리가 힘차게 울려퍼집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삭과 함께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려던 이사도 가지 않았고 이웃들의 시기에도 불평하지 않고 새 우물을 팠대요. 그리고 새 우물 앞에서는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대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여 복을 많이 받았던 이삭처럼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과 늘 함께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7월 19일과 20일에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성경학교가 열린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닮자' 라는 주제로 예수님을 더 깊이 배울 거에요. 유치부 모든 어린이들의 영혼을 소생하는 은혜로운 시간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유리 통신원)

### 유년부
### 여름성경학교 한창 준비중인 교사실

금년 유년부에서는 여름성경학교를 7월16일~7월17일 시행할 예정이다.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마음과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많은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모든 행사를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금년 여름성경학교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교사가 협력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자세가 되기를 바란다. (박효정 통신원)

### 중등2부
### 수련회 준비 위한 비디오 상영

초청 전도주일을 맞이하여 작은 음악회를 열어 새 친구를 환영하였다. 예배 후 새 친구들은 다과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여는 기회로 삼았다. 장애자 시설에서 열리는 여름수련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작전에 돌입했다. 4군데 시설을 답사하여 그곳 실정을 담은 비디오를 상영하여 학생들의 참여 동기를 유발하고 갈 곳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밖에도 학부모님께 만화를 실은 편지를 발송하고 연극과 포스터 부착 등으로 지속적인 참여를 권유하기로 하였다. (심순덕 통신원)

### 중등3부
### 홈페이지로 놀러오세요

중등3부에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에 맞게 활동할 수 있는 여러 소그룹이 있다. 이중 Webkis에서 중등3부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http://middle3.cjb.net 고종식 선생님을 대장으로 4명의 친구들이 매주일 모여 열심히 공부하며 만든 것이다. 모두들 들어와서 인사와 많은 의견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길 기도드린다. (송미경 통신원)

### 장년3부
###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수련회가 되길

여름 수련회(7월 8, 9일)에 많은 성도가 모여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6월은 회원배가와 친교의 달로 정하여 기도로 준비하여 왔다. 교사들이 먼저 성령충만하기를 기도드리고 강사 목사님과 강사 장로님을 위한 뜨거운 기도모임을 가졌고, 장기 결석자들을 심방하여 출석을 독려하고 전도지를 2주 동안 60대들의 손에 전하였으며 지난 주일에는 친교의 날로 모여 반별 친교를 통하여 떡을 떼며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었다.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모임이 수련회까지 이어져 영적 성숙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염미숙 통신원)

### 4교구
### 매일 기도와 간구로 성령 충만을 입고 담대히 전도

우리 교구는 협력하려는 농촌 교회의 사정으로 여름 전도를 겨울로 미루고 대신 교회 주변인 서초구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난 5월 27일 1차로 전도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관심을 갖고 믿음으로 이끌고 있다. 또 더 많은 태신자를 잉태키 위해 구역예배 후에는 합심기도를 하고 있으며 직접 전도도 계속하여 7월 10일 새신자 초청전도집회를 열기로 했다. 매일 기도와 간구로 성령 충만을 입고 담대히 전도하는 4교구 식구들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염미숙 통신원)

### 12교구
###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교구장로님의 지도와 축복하며 평강을 이루는 교구라는 표어 아래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샬롬으로 인사하며 정다운 얼굴을 만나는 교구모임 구역별로 나와 찬양하고 소개하며 지체로서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임을 확인한 후 목사님의 간결한 말씀으로 구역장공부를 통해 은혜를 받는다. 구역장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역예배를 통해 구역이 믿음에 든든히 서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눈물의 기도와 사랑으로 헌신하는 구역장, 모든 교구 일꾼 파이팅! (이규숙 통신원)

물·매·돌

## 그리스도인도 사회인

우리는 기독교인이며 동시에 사회인으로 살아간다. 기독교인에게는 혼탁한 사회를 밝게 만들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동시대의 구성원 전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여 한 마음으로 펼치고 있는 일을 외면하고 있다.

월요일 아침, 김환경 씨는 충현교회 앞에 쓰레기차를 세우고 주일 교회에서 나온 쓰레기를 수거해간다. 오늘 따라 그는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유심히 들여다본다. 봉지 속의 내용물들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도 전혀 분리되지 않은 채 온통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었다. 김환경 씨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아마 교회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있어서는 치외법권지역일 것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하며 묵묵히 쓰레기를 싣고 간다.

사회에서도 전개하고 있는 바람직한 일의 실천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인이고 사회인으로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이다. 쓰레기 분리 수거,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 중의 하나다. 아름다운 지구를 우리 하나님이 손수 만드셨다. 지구를 파괴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설 필요가 있는가? (정연희 기자)

### 14교구
### 말씀 안에 거하는 교구식구들

교구모임때 이강길 집사님의 마태복음 6장 암송에 이어 지난주에는 장요성 권사님의 히브리서 11장 암송이 있었다. 거구의 이 집사님께서 걸걸한 음성으로 한자도 틀리지 않고 암송하시는 모습과 연세가 74세인 장 권사님의 낭랑한 음성으로 또박또박 40절이나 되는 긴 장의 말씀을 외우시는 모습에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다. 한편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농어촌전도대와 단기선교팀들이 복음을 들고 곳곳으로 떠나고 있다. 이번 사역을 위하여 우리들은 후방에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모두가 지원병이 되어 함께 동참하였으면 한다. (이애나 통신원)

## 기쁨과 감사

김 운 섭(집사, 초등부 교사)

오뉴월 풋보리 익고 익어
걸어 온 나날들은 욕심의 흔적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려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양심은
생사를 모르고 저울 눈금에 흔들렸다.

떡정고개 아니 보릿고개로 지친
옛 고개 고개 너머 지게를 내려놓고
정성스레 푸는 한 짐 감사
함지박 터지는 웃음소리에
맥추절 태양은 도리깨 위에 걸려있다.

한낮 늦은 땡볕 거울속을 들여다본다.
가을은 아직 먼데 추수라니
알알이 배워오고 게서 알곡되어 있었나 보다.

여름 속 타작을 위해 땀만큼 수고한
자신을 고스란히 바치는 겸손.

밭고랑 돌아 꼬부라진 저 쪽엔
허기의 만찬이 마련되어 있겠지
어느 처지에든 천국을 위해 바치는
자연도 인간도 감사드리는 절기
감회의 눈동자는 잔잔한 호수로
젖어든다.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생명까지도
당신 앞에 내놓고 나면
시대의 변천따라 달라지는 감사
오직 믿음 안에 나는 오늘도 내일도
끝없이 뻗어나간 그 길로 묵묵히 다가가리라.

## 교회소식 / 목·장칼럼

### 알 림

1. 맥추감사헌금 안내
오늘 I-V부예배시 드립니다.
2. 성찬식 안내
오늘 I-V부예배시 거행됩니다.

### 모 임

1. 장로 화요새벽기도회
· 일시 : 6일(화) 새벽기도회 후
· 장소 :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 월요새벽기도회
· 일시 : 5일(월) 새벽기도회 후
· 장소 : 교육관 109호
3. 주일오후기도회
· 일시 : 오늘 15:00
· 장소 : 사랑부실
4. 감사위원회 월례회
· 일시 : 오늘 15:30
· 장소 : 선교관 404호
5. 봉사위원회 월례회
· 일시 : 오늘 15:30
· 장소 : 선교관 505호
6. 경찰전도회 임원회
· 일시 : 오늘 16:00
· 장소 : 경찰전도회실
7. 경찰전도회 월례회
· 일시 : 11일(다음주일) 15:00
· 장소 : 메추라기홀
8. 교정전도회 월례회
· 일시 : 오늘 15:00
· 장소 : 갈릴리홀
9. 실업인전도회 목요기도회
· 일시 : 8일(목) 새벽기도회 후
· 장소 : 실업인전도회실
10. 이·미용전도회 월례회
· 일시 : 7일(수) 1부예배 후
· 장소 : 교육관 109호
11. 안수집사회 월례회
· 일시 : 오늘 15:30
· 장소 : 교육관 212호
12. 권사 제1지회 월례회
· 일시 : 7일(수) 1부예배 후
· 장소 : 사랑부실
13. 동서울노회여전도회 월례회
· 일시 : 5일(월) 10:00
교회 동문에서 출발
· 장소 : 동현교회(방이동)

### 남녀전도회

1. 바울 17지회 월례회
· 일시 : 11일(다음주일) 15:00
· 장소 : 아멘홀
2. 베드로 1지회 월례회
· 일시 : 10일(토) 19:30
· 장소 : 포토맥스
(장동익 집사댁
☎ 539-0497)
3. 베드로 9지회 월례회
· 일시 : 8일(목) 19:30
· 장소 : 상봉동 가문솥밥
4. 베드로 16지회 월례회
· 일시 : 오늘 15:00
· 장소 : 영아부실
5. 루디아 1지회 월례회
· 일시 : 12일(월) 11:00
· 장소 : 사랑부실
6. 루디아 8지회 월례회
· 일시 : 13일(화) 12:00
· 장소 : 정정근 집사댁
7. 마리아 1지회 월례회
· 일시 : 13일(화) 10:30
· 장소 : 사랑부실
8. 마리아 6지회 월례회
· 일시 : 13일(화) 11:00
· 장소 : 영아부실

### 별 세

1. 하명주 집사
(백영희 권사 모친, 이상호 집사 장모, 5교구 구마을구역) / 6월 27일 별세, 29일 장례

###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1. 김일교 집사 / 강동구 상일동 187 주공A. 713-506 ☎ 429-2694

### 충현 중보의 창

① 김창인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임목사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총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세워가게 하소서.
② 때를 따라 내려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소서.
③ 제3차 전국 찬양대지도자강습회(8월 11-14일)가 잘 준비되게 하소서.
④ 각 부서별로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에 참여하는 충현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⑤ 금년 여름에 실시될 단기선교와 농어촌전도 사역을 통해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⑥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⑦ 우리 교회가 천국일꾼을 양성하는 일에 더욱 힘써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소서.
⑧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소서.
⑨ 각 전도회가 전도하는 전도회로 거듭나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⑩ 겸손하고 조용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우리들의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 새·가·족·을·환·영·합·니·다

| 번호 | 성명 | 교구 | 소속부서 | 인도자 | 번호 | 성명 | 교구 | 소속부서 | 인도자 | 번호 | 성명 | 교구 | 소속부서 | 인도자 |
|---|---|---|---|---|---|---|---|---|---|---|---|---|---|---|
| 938 | 이재우 | 1 | 중등부 | | 949 | 이정애 | 12 | 에스더 | 이상덕(13) | 960 | 문승훈 | 19 | 청년1부 | |
| 939 | 손성환 | 2 | 바 울 | 최근준(2) | 950 | 이동진 | 12 | 중등부 | 이상덕(13) | 961 | 문유경 | 19 | 청년1부 | 권영일(19) |
| 940 | 신양수 | 2 | 한 나 | 최근준(2) | 951 | 이동훈 | 12 | 중등부 | 이상덕(13) | 962 | 이강수 | 19 | 청년1부 | 이연희(8) |
| 941 | 이경남 | 3 | 에스더 | 한정희(3) | 952 | 김정희 | 16 | 에스더 | 방민자(4) | 963 | 정유희 | 193 | 중등부 | |
| 942 | 이영미 | 5 | 청년2부 | | 953 | 현한나 | 19 | 대학부 | 강임구(1) | 964 | 최대원 | 19 | 청년1부 | 서인순(2) |
| 943 | 손영순 | 6 | 청년2부 | | 954 | 정윤희 | 19 | 대학부 | 최광자(8) | 965 | 강대진 | 19 | 대학부 | |
| 944 | 손정순 | 6 | 청년1부 | | 955 | 이동호 | 19 | 청년1부 | 이명숙(1) | 966 | 이후민 | 19 | 청년2부 | 지순애(17) |
| 945 | 김남분 | 6 | 소망부 | | 956 | 장명이 | 19 | 청년1부 | | 967 | 권성문 | 19 | 청년2부 | |
| 946 | 김순희 | 8 | 대학부 | 최광자(8) | 957 | 성두현 | 1 | 청년1부 | 이영희(1) | 968 | 손춘심 | 19 | 에바다부 | |
| 947 | 유병덕 | 10 | 청년1부 | 김헌미(10) | 958 | 한유경 | 19 | 청년1부 | | 969 | 김세경 | 194 | 대학부 | |
| 948 | 이선홍 | 12 | 바 울 | 이상덕(13) | 959 | 김종찬 | 19 | 청년1부 | | 970 | 이동진 | 5 | 중등부 | |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목·장칼럼

# 목사의 눈에 비친 세상

김 동 하(목사, 대학부 지도)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수고 없이 돈을 버는 자들을 부러워하게 되었다. 몇년 전까지는 부동산 투기로 일확천금을 벌려는 풍조가 유행했고, 이 영향은 우리의 사회를 물질만능과 거품투성이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다. 하나님은 땅을 돈버는 데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렇게 했다. 땅을 소중히 하고 그것을 지켜야 할 기업과 정부까지도. 그런데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증권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젠 수고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한다.

땅을 일구어야 할 농부의 마음은 논과 밭에서 멀어져 가고, 회사에서 자기의 몫을 감당해야 할 직장인들의 마음은 일터에서 멀어져 간다. 따뜻한 밥을 해 먹이고 남편과 자녀를 보살펴야 할 주부들의 마음도 가정에서 멀어져 간다. 이들은 모두 충혈된 눈으로 숫자를 쳐다보고 있다.

더 아찔한 것은 사회를 선도해야 할 언론들까지도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한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조차 경제를 회복시킨다는 구실로 침묵하고 있다. 마치 과거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부동산 투기 시대에도 침묵하고 오히려 동조하였듯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있다. 땀흘려 그 소산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또다시 우리들의 마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은 또다시 맘몬신(mammon; 마 6:24의 富의 신)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점점 성실을 잃어 가고 땀과 노동의 의미를 잃어 가고 있다.

오, 하나님! 언제나 이 땅에 돈보다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날이 올까요! 원하옵기는 아직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지게 하소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딤전 6:10).

### 섬·기·는·분·들

■ 원로목사 김창인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 | | |
|---|---|---|---|
| 윤명식 새가족부 부장 | 김의철 제2교구장 | 조선근 출판국장 | 김은호 교구위원장 |
| 마성락 소망부 부장 | 김차생 선교위원장 | 김경칠 탁아부 부장 | 우기전 건축위원장 |
| 손동운 중등3부 부장 | 노광현 당회 서기 | 오진국 선교위원 | 정하우 기획위원장 |
| 이병학 제3교육위원장 | 윤인현 선교위원 | 최대원 제2교육위원장 | 박승준 제12교구장 |
| 엄필성 장년3부 부장 | 송기홍 봉사위원장 | 강은원 사랑부 부장 | 강모용 장년2부 부장 |
| 오정헌 예배위원장 | 최성현 제10교구장 | 이 훈 찬양위원장 | 남선우 제1교육위원장 |
| 서동석 초등부 부장 | 송환창 교육훈련원 부원장 | 정운석 제11교구장 | 김영길 제16교구장 |
| 문홍구 봉사위원 | 조인제 이멘찬양대장 | 김종구 유아부 부장 | 최무길 중등2부 부장 |
| 김천채 제18교구장 | 이창호 제8교구장 | 차신득 감사위원장 | 김재명 행정위원장 |
| 박영식 전도위원장 | 김광남 재정위원장 | 이종석 제5교구장 | 손경수 청년2부 부장 |
| 이종국 행정위원 | 윤성철 당회 부서기 | 김여순 제7교구장 | 이하영 제17교구장 |
| 박인건 제13교구장 | 김인관 제6교구장 | 이병옥 장년1부 부장 | 안종욱 제14교구장 |
| 이인상 소년부 부장 | 최명환 재정위원 | 임무천 고등부 부장 | 이종섭 유치부 부장 |
| 최기홍 성경연구원 원감 | 이승철 기획위원 | 이갑재 제15교구장 | 진홍용 에바다부 부장 |
| 전홍렬 제9교구장 | 이정우 임마누엘찬양대장 | 김단용 중등1부 부장 | 황영일 제4교구장 |
| 손 철 시온찬양대장 | 한송규 제1교구장 | 임기채 유년부 부장 | 김춘권 청년1부 부장 |
| 김영수 선교위원 | 정홍식 대학부 부장 | 김환기 신혼가정부 부장 | |

■ 부목사
이홍성 김회수 이종대 박경한 김동석
김필수 전형준 김재철 이승수 정갑신
정현민 조문찬 조칠수 김동하 차병준
김병태 김인식 권상현 서광진 이승학
정해성 이준경

■ 협동목사 윤영탁 박형용 노봉린
■ 선교사 이준교 안석렬 김영대
■ 강도사 박인기 염현일
■ 여전도사
정연희 현정남 장영자 임태주 김정자
배옥인 최지혜 손미희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오정숙 오인숙 김옥윤 한영준
박종화 김영숙 김복순 김연식
■ 교정전도사 박양덕

### 예배 안내

| 구분 | | 시간 | 장소 |
|---|---|---|---|
| 주일예배 | I | 오전 7:00 | 본당 |
| | II | 오전 9:00 | 본당 |
| | III |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 본당 |
| | IV |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 본당 |
| | V |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 본당 |
| | English Service | 9:00 a. m. | 복지관 가나홀(Cana Hall) |
| 찬양예배 | | 오후 5:00 | 본당 |
| 수요예배 | | I 오전 11:00 II 오후 7:30 | 본당 |
| 금요집회 | | 오후 7:30 | 본당 |
| 새벽기도회 | | 오전 4:40 | 본당 |